

한주간 쉽게 보는

#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74



# Contents

※ 2025.04.10.(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4.03.~2025.04.09.)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수소

- 울산-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2025.04.09) .....1
- 제주,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실증사업 박차(2025.04.09) .....1
- 천안시, 수소전기차 50대 보조금 지원(2025.04.08) .....2
- 속초종합경기장에 수소충전소 신설 착수(2025.04.08) .....2
- 울산명촌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 시작(2025.04.08) .....2
- 포항시, '수소 시민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2025.04.07) .....3
- 전북자치도, RE100 수소분과 회의로 청정에너지 박차(2025.04.06) .....3
- 영광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나서 미래 에너지 전환 박차(2025.04.04) .....3
- 대구시, 친환경 시내버스 92대 도입, CNG·수소·전기 확대(2025.04.03) .....4

### ▪ UAM

- 국토부, '하늘을 나는 택시' K-UAM 시범사업 지원(2025.04.06) .....4
- 데이터센터, 항만시설에 포함, UAM 버티포트 설치 허용(2025.04.08) .....5
-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거점도시 청사진 제시, 남해안 UAM 관광 추진(2025.04.07) .....5
- 정장선 평택시장 "UAM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2025.04.08) .....5

- **우주**
  - 우주청, 국내 전기추력기 개발 기업과 간담회 진행(2025.04.03) .....6
  - 우주항공청, 국제거대전파망원경 참여 추진, SKA0와 협력 본격화(2025.04.03) .....6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추진, 재해·재난 및 우주산업 육성 기여(2025.04.04) .....7
  - 우주신흥국·유럽 잇는 교두보 구축, 우주항공청, 국제협력 가속화(2025.04.08) .....7
  - 경남도, 세계 우주 5대 강국 실현 박차(2025.04.03) .....8
  - 항공우주 인재 양성 위해 과학창의재단-인천교육청-보령 협력(2025.04.03) .....8
  - 고흥군, 동아사이언스와 협력해 과학문화 확산·우주도시 브랜드 강화(2025.04.03) ..9
  - 사천에 ‘위성개발혁신센터’ 들어서, 우주산업클러스터 본격화(2025.04.06) .....9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KTC, 수소차 충전기 정량 관리 논의 기술간담회 개최(2025.04.08) .....10
- **우주**
  - 광주과학관, 우주과학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 개막(2025.04.03) .....11

##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현대차, 신형 ‘디 올 뉴 넥쏘’ 세계 최초 공개(2025.04.08) .....11
  - 평택시,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자동차 산업 연계 모색(2025.04.08) .....12
  - 휴그린파워, 분당 2ℓ 고순도 수소 생산 기기 출시(2025.04.08) .....12
  - 우석대 부총장, ‘수소경제’ 중요성 강연, 탄소중립 해법 제시(2025.04.03) .....12

- 그린수소 시장, 중국 저가 공세에 잠식 우려(2025.04.09) .....13

■ 우주

- LG, 로봇·우주·퀀텀컴퓨팅 스타트업 발굴로 미래기술 확보(2025.04.03) .....14

- 한발대-스페인 말라가대, 반도체·우주항공 협력 R&D 추진(2025.04.03) .....14

- 한·중·일, 우주협력 잠재력 재조명(2025.04.03) .....15

- 군 정찰위성 4호기, 스페이스X 발사 추진, 안보 감시 강화(2025.04.03) .....15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b>□ 울산-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2025.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와 현대차가 수소 연료전지 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목을 받는 상황. 이번 협약으로 울산시는 인허가 단축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현대차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지로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할 계획</li> <li>- 공장 신설로 수소차 부품 분야도 동반 성장할 전망. 양측은 원활한 공장 건설 절차를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와 함께 일자리 확대와 부품사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li> <li>- 공장은 화학 공정과 조립 공정을 함께 갖춘 ‘원팩토리’ 형태로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착공에 돌입할 계획. 현대차는 이를 통해 그룹의 연료전지체계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울산시는 글로벌 미래차 선도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상황</li> </ul>
	<p><b>□ 제주,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실증사업 박차(2025.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실증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만들어 연료전지 전기로 재공급하는 모델을 구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li> <li>-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다기관이 참여해 2026년까지 370억 원을 투입함. 수전해 설비, 저장시설,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구축해 일 최대 400kg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버스나 인근 시설에 공급하는 시나리오를 실증할 예정</li> <li>- 추후 생산시설과 연계하면 일 최대 1400kg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해져, 수소버스 운행 등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할 방침. 제주도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3.3MW급 그린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소버스 운행으로 청정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b>□ 천안시, 수소전기차 50대 보조금 지원(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천안시가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50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 차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일반 시민 등이 대상</li> <li>- 개인·개인사업자는 1대, 기업·법인·단체는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출고·등록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수소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li> <li>- 천안시는 이미 300대가 넘는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해왔고, 이번 50대 추가 지원으로 대중적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 시는 기후에너지과를 통해 구체적 문의나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선도하고자 힘쓰는 상황</li> </ul>
	<p><b>□ 속초종합경기장에 수소충전소 신설 착수(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초시가 속초종합경기장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함.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넥쏘 기준 하루 200대 충전이 가능한 상용 규모로 구축될 예정</li> <li>- 이 사업은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기술 검토를 거쳐 6월 중 착공을 목표로 설정.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며, 수소버스 충전도 가능해 지역 내 수소 인프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li> <li>- 기존 충전소 고장 시 대체 시설로 활용되고 충전 대기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여,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전망. 이병선 시장은 빠르고 안전한 충전소 조성을 통해 청정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li> </ul>
	<p><b>□ 울산명촌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 시작(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에 17번째 수소충전소인 ‘울산명촌 수소충전소’가 완공되어 본격 가동 중.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8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고, 대형 버스 3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시설</li> <li>- 하루 최대 버스 360대, 승용차 1440대 정도가 충전 가능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충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 국도 7호선 인근에 위치해 시내버스 운송사와 화물차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아, 충전 대기 시간 단축에 기여할 전망</li> <li>- 운영은 경동도시가스가 담당하며,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예정. 울산시의 수소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지속 확충되며, 대형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도입도 확대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b>□ 포항시, ‘수소 시민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2025.04.0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가 시민 대상 ‘2025 포항 수소 시민 아카데미’ 를 진행하며, 수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투어와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직접 수소 산업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실정</li> <li>- 이번 아카데미는 4월 25일에 열리며, 수소에너지의 이해, 포항시 수소정책, 연료전지 키트 체험 등이 포함됨. 에너지 소비자이면서 정책 참여자인 시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계기 마련</li> <li>-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됨. 수소산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포항시의 청정에너지 도시 비전 실현에 협력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열어두는 모습</li> </ul>
	<p><b>□ 전북자치도, RE100 수소분과 회의로 청정에너지 박차(2025.04.0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회의를 열고, 올해 운영계획과 현안을 논의함. 수소분과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풍력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의 시너지효과 기대</li> <li>-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 산업 조성 방안과 수소기술원 설립 이슈 등이 집중 논의됨.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모집과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최 계획도 공유되며,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li> <li>- 전북자치도는 수소특화단지 활성화와 연계 사업을 구체화해, 지역 수소 생태계 기반을 다지고자 함. 민관산학연 협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 미래산업으로서 수소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li> </ul>
	<p><b>□ 영광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나서 미래 에너지 전환 박차(2025.04.0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광군이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함. 대마산업단지 내 ‘그린수소 생산기술 성능시험센터’ 를 기반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과 수소도시 구축 등 핵심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li> <li>- 군은 2035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40년까지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를 위해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도 병행할 계획</li> <li>- 장세일 군수는 이번 육성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분야 전반을 강화해 미래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 강조되는 모습</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대구시, 친환경 시내버스 92대 도입, CNG·수소·전기 확대(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가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을 위해 올해 CNG·수소·전기 등 친환경 버스 9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모두 저상형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li> <li>- 특히 수소버스는 41대가 추가 도입되어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될 예정. 대구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도 확충해, 액화수소충전소 등으로 1일 최대 수십 대 이상의 버스를 안정적으로 충전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li> <li>- 이번 정책으로 대구지역 시내버스의 전반적 노후 교체가 가속될 전망. 대구시는 지속적인 친환경 버스 보급을 통해 수소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li> </ul>

##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b>국토부, '하늘을 나는 택시' K-UAM 시범사업 지원(2025.04.0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상황. 오는 7일 설명회를 통해 공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고,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으며,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li> <li>- 사업 방향과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버티포트 건설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구조.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비롯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방침. 국토부는 이번 공모가 UAM 서비스 발굴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li> <li>- 국토부는 글로벌 UAM 기술 개발과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 김홍목 국토부 국장은 국민에게 이로운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이번 지역시범사업이 하늘길 교통혁신을 현실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내달 공고문 게재로 본격화할 예정</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b>데이터센터, 항만시설에 포함, UAM 버티포트 설치 허용(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항만시설 범위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상황. 항만과 도심을 잇는 교통 연계를 강화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li> <li>-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 도입과 민간 투자 장벽 완화, 어항시설 규제 철폐 등도 추진되며,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직불제 지원 등이 포함됨.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 기준 축소 등 어선안전 강화 대책도 병행되는 실정</li> <li>- 해수부는 어업 관련 낡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복원해역과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마련할 계획.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와 공모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요구를 수렴해 해양수산 업계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 표명</li> </ul>
지자체	<p>□ <b>고흥군, 도심항공교통 거점도시 청사진 제시, 남해안 UAM 관광 추진(2025.04.0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고흥군이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을 위해 ‘고흥형 UAM 중장기 로드맵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구체적 추진 전략을 제시했음. 군은 지난해부터 UAM을 미래 핵심전략으로 삼아 관광 노선, 응급환자 이송, MRO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왔음</li> <li>- 이번 용역에서 군은 초광역 노선을 구축해 목포·신안부터 경남 고성·통영까지 잇는 하늘길 관광을 구상했음. 지역 명소인 팔영산, 금산 해안경관 등을 조망하는 ‘고흥 UAM 하늘길 투어’도 마련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연계 응급환자 이송체계, 유지·보수·운영(MRO)을 통합한 산업단지 조성안도 제시</li> <li>- 군은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전남도의 미래항공교통(AAM) 종합계획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노선 개발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아우르는 전략을 통해 UAM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 인프라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li> </ul> <p>□ <b>정장선 평택시장 "UAM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며, UAM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유한 상황. 시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산·학·연·관 전문가들을</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통해 평택지제역과 평택항 중심 버티포트 후보지 등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에서는 UAM 공역·회랑 분석 결과, K-UAM 그랜드챌린지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고, 수소·미래차 산업과 UAM을 연계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논의됨. 시는 평택지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해 미래 교통허브로 만드는 한편, 항만 인프라와도 연동하는 실증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li> <li>- 정장선 평택시장은 UAM이 단순 교통혁신을 넘어 수소·미래차 산업과 결합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시는 전문가 워킹그룹 논의를 토대로 UAM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평택을 ‘UAM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li> </ul>

##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b>☐ 우주청, 국내 전기추력기 개발 기업과 간담회 진행(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이 대전 소재 전기추력기 개발 기업 ‘스페이스솔루션’과 ‘코스모비’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짐. 전기추력기는 연료 대비 효율이 높아 초소형 위성 등에 활용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이번 만남은 민간 주도 위성 산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행보</li> <li>- 스페이스솔루션은 누리호 자세제어 부품, 위성용 추력기 등을 개발하며 우주 활용 이력을 축적함. 코스모비는 초소형 위성용 전기추력기 전문기업으로, 올해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에 큐브위성 탑재도 추진 중. 두 회사 모두 전기추력기 핵심 설계·제작·검증 기술을 보유</li> <li>- 우주청은 초소형 위성 운용 증가와 저궤도 미션 확대 추세 속에서 국내 부품 업체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정부는 민간 협력을 확대해 위성용 전기추력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 올해 말까지 스타트업·부품 개발 기업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li> </ul> <p><b>☐ 우주항공청, 국제거대전파망원경 참여 추진, SKAO와 협력 본격화(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이 국제거대전파망원경(SKAO)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SKAO(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와 협력을 논의함. 운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필 다이아몬드 SKA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공식 가입 절차 추진 및 연구 협력 방안을 협의함. 전파망원</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경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핵심 시설로 꼽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A 건설은 천문우주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 이번 만남에서 우주항공청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글로벌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할 의지를 피력함. SKAO 측 역시 한국 참여가 프로젝트 완성도와 과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함</li> <li>- SKA는 호주와 남아공 등 광대한 지역에 다수의 전파안테나를 설치해 우주 기원을 탐사하는 대규모 국제사업. 우주항공청은 이 기회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제 천문학과 교류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한국의 공식 가입이 성사되면 과학기술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li> </ul>
	<p><b>□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추진, 재해·재난 및 우주산업 육성 기여(2025.04.0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이 부산에서 열린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의’에서 요구 성능 충족 여부와 추진 일정을 협의함.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다부처 협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신속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li> <li>- 합성개구레이더(SAR) 검증위성은 2026년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며, 이후 SAR 군집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도 순차적으로 쏘아 올릴 계획. 국방과학연구소가 총괄연구기관을 맡아 국내 연구기관·업체들이 협력 중. 향후 425위성과 연계 운용해 군 핵심전력과 재해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li> <li>-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에 초소형위성을 활용해 정확한 위기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 우주항공청은 이를 통해 핵심 기술 확보와 발사체 기회 제공 등 우주산업 육성 효과도 기대함. 민·군·청의 협업으로 초소형위성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양</li> </ul>
	<p><b>□ 우주신흥국·유럽 잇는 교두보 구축, 우주항공청, 국제협력 가속화(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청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2025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이탈리아 우주청과 각각 협력 협약을 체결함. 우즈베키스탄에는 위성개발, 우주 인력양성, 정책·전략 경험 공유 등을 지원해 상호 성장도 도모하기로 했음. 이탈리아와는 우주탐사, 지구관측, 항법 분야 협업을 확대할 계획</li> <li>- 유럽우주청(ESA)과도 지상 데이터 시스템,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분야에서 협력 프레임워크를 논의함. 우주항공청은 한국 기업·기관이 유럽 우주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협력 의제를 제안했음.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 약정 체결 후 구체적 실무협력을 추진할 방침</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빈 청장은 이번 성과가 단순 외교를 넘어 기술·산업·인력 교류를 결합한 입체적 협력 구조라고 평함. 우주신흥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며 국제 우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동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li> </ul>
지자체	<p><b>□ 경남도, 세계 우주 5대 강국 실현 박차(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도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842억 원을 투입함. 올해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건립해 인공위성 관련 연구·제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지역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li> <li>-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진주에, 위성개발혁신센터는 사천에 들어서며, 각각 1554억 원과 371억 원이 투입될 예정.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확대 기조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노리는 중.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40년 무렵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됨</li> <li>- 경남도는 전문 인력양성에 13억5000만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한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육성에 주력함. 사천·진주를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으로 구축해 국가적 우주전략에 기여하고자 함. 미래산업으로서 우주 분야 잠재력을 극대화해 세계 5대 우주강국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상황</li> </ul> <p><b>□ 항공우주 인재 양성 위해 과학창의재단-인천교육청-보령 협력(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보령과 협력해 항공우주 분야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강화함. 청소년 대상 우주과학 경연대회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항공우주 기관 연계 활동을 지원할 계획.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구상</li> <li>-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 분야 교육 확산 및 과학기술문화 증진을 위해 체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학생 교육, 교사 연수, 국제 연계 프로그램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미래 우주과학 인재를 양성할 예정.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핵심 역량을 갖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li> <li>- 정우성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지역 교육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의융합인재 육성 의지를 표명함. 보령과 인천교육청은 항공우주 교육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인프라·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방침. 세 기관은 지속적인</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협력을 통해 우주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p>
	<p><b>□ 고흥군, 동아시아언스와 협력해 과학문화 확산·우주도시 브랜드 강화(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고흥군이 과학 콘텐츠 플랫폼 ‘동아시아언스’와 손잡고 국내 대표 우주과학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해 업무협약 후 ‘어린이 우주기자단’ 운영 등 협업 사례가 주목받았으며, 올해도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다양한 콘텐츠 전략을 추진</li> <li>- 특히, 어린이과학동아가 발행하는 일러스트 맵 기반의 체험형 브로셔를 마련해, 나로우주센터와 누리호 발사 현장 스토리 등을 흥미롭게 전달함. 우주 만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요소도 준비됨. 축제 기간에는 무료 잡지와 d라이브러리 체험권도 제공할 예정</li> <li>- 군은 이번 협업을 통해 고흥이 대한민국 대표 우주학습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함.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 미래세대를 위한 전문 교육과 관광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 창출을 노리는 모습</li> </ul>
	<p><b>□ 사천에 ‘위성개발혁신센터’ 들어서, 우주산업클러스터 본격화(2025.04.0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에 발맞춰 ‘위성개발혁신센터’를 설립함. 이 시설은 위성 제작·개발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며,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내 위성특화지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본격화가 가능</li> <li>- 센터는 부지 6500㎡, 연면적 59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형태로 조성될 예정. 국비 70억 원, 도비 85억 원, 시비 226억 원 등 총 381억 원이 투입됨. 위성 탑재체와 핵심 부품 개발 장비를 구축해, 기업과 연구기관에 테스트·인증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li> <li>-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서부경남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려 함. 우주항공청과 특별법 제정, 도시공간 계획 등을 긴밀히 조율하는 중. 박동식 시장은 위성개발혁신센터가 국내 위성산업 거점이 되어,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에 일조하길 기대</li> </ul>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KTC, 수소차 충전기 정량 관리 논의 기술간담회 개최(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수소차 충전기 정확한 계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 기술간담회를 연 상황. 충전기 제조사, 유량계, 충전소 운영사 등 10여 곳이 참여해 글로벌 정량 관리 사례와 국내 제도 수립 방향을 논의</li> <li>- KTC는 삼척에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를 건립해, 19종 평가 설비를 통한 현장 검교정 서비스와 측정 소급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관리 사례를 살피면서 국내 기술 수준에 맞춘 기준을 개발해, 공정한 수소 거래 환경 조성</li> <li>- 전문가들은 수소 전주기(생산-운송-활용)에서 신뢰성 있는 계량 체계를 세우는 것이 시장 확대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함. KTC는 국제 표준(OIML R 139)에 부합한 제도를 마련해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돕겠다는 목표로 설정</li> </ul>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p>☐ <b>광주과학관, 우주과학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 개막(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광주과학관이 4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주과학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 를 개최함. 전시에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한 역사와 그 과정에서 마주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담겨 있음. 빛과 망원경, 블랙홀, 암흑물질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로 꾸려질 예정</li> <li>- 전시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 우주놀이터 등 총 4개 존으로 구성됨. 각 존에서 과학자들이 블랙홀이나 중성미자 등을 연구해 온 여정을 다양한 전시품으로 소개함. 블록 우주선 조립, 우주 직소 퍼즐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관람객 참여도를 높일 방침</li> <li>- 문기현 연구원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우주개발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밝힘. 우주 관련 콘셉트를 놀이와 체험으로 접목해,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과학 교육의 장을 만들 계획. 전시는 청소년들이 우주과학에 대한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li> </ul>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현대차, 신형 ‘디 올 뉴 넥쏘’ 세계 최초 공개(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차가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2세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 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상황. 물만 배출하는 수소차 특성을 물줄기 연출로 강조하며, 강인하고 심플한 SUV 이미지를 담아내 관람객에게 큰 주목을 받았음</li> <li>- 새 넥쏘는 효율 높은 20스태이지 모터 시스템과 인버터 2개를 적용해 모터 출력 150kW, 제로백 7.8초 등을 실현함. 약 5분 내외 충전으로 700km 주행을 목표로 하며, 실내외 V2L, 100W C타입 충전 포트 등을 탑재해 운전자 편의성까지 높은 상황</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기조에 걸맞게 범퍼, 가죽 등 곳곳에 재활용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함. 가격 경쟁력과 보조금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대차는 수소 생태계 확장에 꾸준히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 모빌리티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는 구상</li> </ul>
	<p><b>□ 평택시,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자동차 산업 연계 모색(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시가 지역 맞춤형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통해 미래 교통과 산업 연계를 모색하는 중. 평택지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하고, UAM 버티포트 후보지 입지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며 전략적 접근을 진행하는 모습</li> <li>- 수소·자동차 산업이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UAM 산업과 결합해 전후방 산업까지 활성화할 계획. 특히 K-UAM 그랜드챌린지 컨소시엄과 협력하면서 평택 산업 특성에 맞는 실증사업과 인프라 조성 추진</li> <li>- 시는 UAM 산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고, 나아가 자동차·수소연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부품·서비스 생태계 육성을 견인할 전망. 정장선 시장은 평택을 UAM 선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li> </ul>
	<p><b>□ 휴그린파워, 분당 2ℓ 고순도 수소 생산 기기 출시(2025.04.0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그린파워가 수소화붕소나트륨(<math>\text{NaBH}_4</math>)을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공급 기기’를 출시함. 최대 분당 2리터의 고순도 수소를 공급하고, 교환형 연료통을 통해 간단히 연료를 교체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li> <li>- 고압이 아닌 저압으로 수소를 생산·공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고체 형태 연료를 활용함으로써 저장·보관 면에서도 차별화했음.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원하는 수소량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손잡이를 통해 이동도 수월</li> <li>- 휴그린파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같은 소량 고순도 수소를 필요로 하는 산업 장비 시장을 목표로 국내외 전시회와 온라인 B2B 마켓을 공략할 계획. 수출 확대에도 주력해 글로벌 소형 수소 공급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li> </ul>
대학교	<p><b>□ 우석대 부총장, ‘수소경제’ 중요성 강연, 탄소중립 해법 제시(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석대학교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이 유레카초청강의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핵심 해법으로 수소경제를 강조함. 이 부총장은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청정수소 기술 발달이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는 상황</li> <li>- 1998년부터 수소차 개발에 매진해온 현대차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함.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자만이 생존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부총장은 국내외 표준화, 자문위원회, 학술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소기술 보급에 노력해왔음. 강의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수소경제를 이해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메시지를 전달</li> </ul>
해외	<p><b>□ 그린수소 시장, 중국 저가 공세에 잠식 우려(2025.04.0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장이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협에 직면한 상황. 중국산 수전해 설비의 MW당 가격이 한국 제품보다 크게 저렴해, 일부 국내 기업도 중국산 부품을 조립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확보 시도</li> <li>- 중국 수전해 업체들은 생산 규모와 국가 지원을 발판 삼아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가격 우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한국에서도 인증 절차를 밟아 공공 발주 시장 진입을 노리는 중. 이로 인해 국내 수소산업 전체가 중국 제품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li> <li>- 전문가들은 국내 수소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산업 보호 정책과 인증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부품 교체 시 전부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지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중장기 대책 마련이 중요해 지는 국면</li> </ul>
기타	- (해당 없음)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b>민간기업</b></p>	<p>☐ <b>LG, 로봇·우주·퀀텀컴퓨팅 스타트업 발굴로 미래기술 확보(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LG 슈퍼스타트’ 를 통해 로봇틱스, 우주, 퀀텀컴퓨팅, 스마트팩토리 등 신규 미래기술 분야를 발굴함. 그간 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 위주였으나, 기술 다변화를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함. 이달 말까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 중</li> <li>- 로보틱스 부문은 휴머노이드 제어 기술, 멀티모달 AI, 경량화 분야 등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음. 우주 부문은 우주 인프라·위성 부품·탐사 기술 스타트업에 주목해 혁신 아이디어를 찾고자 함. 퀀텀컴퓨팅 분야 역시 요소 기술과 활용기술을 아우르며 차세대 컴퓨팅 역량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li> <li>-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LG 계열사와 협업해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무상 보육공간과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받게 됨. LG는 이전에도 반도체 스타트업 ‘스트라티오’ 등에 투자 사례를 보여 왔음. 이번 확장된 슈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li> </ul>
<p><b>대학교</b></p>	<p>☐ <b>한밭대-스페인 말라가대, 반도체·우주항공 협력 R&amp;D 추진(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한밭대가 스페인 말라가대학교와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반도체·우주항공·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함. 오용준 한밭대 총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참석해, 대전시 전략산업과 말라가시의 국제 컨퍼런스 연계를 통한 교류 계획을 구체화</li> <li>- 양 대학은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 IMEC을 포함한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후공정·국방용 반도체 기술 연구에 협력함. 우주항공·국방기술 부문에서는 AI·센서 기반 상태기반정비(CBM+) 연구와 기업 협업을 추진할 예정. 유럽형 컨소시엄인 호라이즌 유럽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li> <li>- 두 대학은 내년 말라가에서 열리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총회에서 공동연구 성과와 협력 모델을 발표할 방침. 이를 통해 반도체·우주항공산업 발전과 국제 공동 R&amp;D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 대전시도 지역 대학과 해외 대학의 협업을 뒷받침해 혁신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li> </ul>
<p><b>해외</b></p>	<p>- (해당 없음)</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b>한·중·일, 우주협력 잠재력 재조명(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발사체 못지않게 우주발사대와 우주기지가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인 점이 다시 부각됨. 우주발사대는 군사·경제적 위성 운용과 독립적 우주기술 확보에 필수 요소로 꼽힘. 이를 보유한 국가는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 가능</li> <li>-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의존해 군사위성을 발사해 온 사례가 주목됨.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이 기지를 임대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불 중. 이런 의존도 탓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바이코누르 대안을 모색하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건설 추진</li> <li>- 우주발사대처럼 자원·지리적 이점이 결핍된 국가는 협력 파트너에 의존해 발사 서비스를 구입함. 한·중·일이 보유 기술과 경제력을 결합한다면 막대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우주협력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아직 세 나라는 상호 협력 시도를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li> </ul>
	<p>□ <b>군 정찰위성 4호기, 스페이스X 발사 추진, 안보 감시 강화(2025.04.0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군이 독자 정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425사업 일환으로, 군사정찰위성 4호기를 이달 말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서 발사할 예정.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으로, 4호기는 악천후에서도 촬영 가능한 SAR 센서를 장착</li> <li>- 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을 약 2시간 간격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됨. 1~3호기 일부가 이미 발사돼 지상국에 영상을 전송 중이며, 이번 4호기가 궤도에 오르면 주·야간 정찰 역량이 한층 높아질 전망</li> <li>- 북한도 ‘만리경’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실패 사례가 이어진 바 있음. 우리 군은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을 활용해 발사비용을 절감하며 위성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계획.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감시능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구상</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